

기초연금·행복주택 등 예산 편성 부적정

예산정책처, 차정부 대선공약 예산 조목조목 비판 F-X사업 예산 조정 필요, DMZ 평화공원 재검토

박근혜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초연금, 행복주택 등 일부 대선공약에 대한 예산 편성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예산정책처가 5일 펴낸 '2014년도 예산안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51개 중앙행정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사업 유사·중복, 예산과다 편성 등 허점이 곳곳에서 발견됐다.

예산정책처는 내년 7월 도입될 예정인 기초연금 예산은 올해보다 63% 증가한 5조2002억원 편성됐으나, 기초연금 도입시 현행 기초노령연금제도보다 2014~2017년 14조2000억원의 추가 재정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예산안을 심사할 때 지방비 부담 증가를 포함한 재정 소요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도심 내 국·공유지를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행복주택'은 내년에 5만6000호를 건설할 계획으로 9530억원이 신규 편성됐으나 이는 평당 건설단가를 국민임대주택 수준인 680만원으로 일괄 책정할 것으로서 정확한 건설단가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조3000억원을 투자해 고성능 전투기를 해외구매로 확보하는 방위사업청의 F-X 사업은 7328억6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됐지만, 최근 최종 후보 기종이었던 F-15SE(보잉)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결과 부결돼 현재 사업 재추진 방안이 검토 중이므로 예산 조정이 필요하다고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402억원의 예산이 확보된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남북 간, 유엔사령부-북한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공인 입지도 확정되지 않는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중 셋째 아이 이상 등록금 지원사업에 1225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나, 예산정책처는 수혜자가 대학생 자녀를 둔 40~50대여성 출산율 상승 효과가 불분명하고 지원대상이 기존의 국가장학금 수혜자와 겹치는 면이 있어 예산을 재산정하면 646억원이 줄어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분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랜드 조성사업'은 기존에 유사한 펀드의 결성이 부진했는데도 또다시 비슷한 펀드를 새로 만들기 위해 200억원을 편성, 예산정책처의 지적을 받았다.

그밖에 내년에 국가가 수납할 벌금·과

료의 세입액이 올해보다 744억여원 감소한 1조7203억4000만원으로 편성돼 있으나, 최근 4년간 미수납액이 점점 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정확한 추계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영국 국빈 방문한 박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2박3일간의 프랑스 방문을 마치고 4일 저녁(현지시각) 영국 히드로 국제공항에 도착, 환영인사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전남 동아시아 미래재단' 8일 창립

상임대표 이개호씨... 손학규 지지세력 규합 주목

민주당 손학규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 미래재단'의 지역조직이 될 '광주·전남 동아시아 미래재단'이 오는 8일 5·18기념문화관에서 창립대회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5일 동아시아미래재단에 따르면 손학규 전 대표의 지역세력을 규합한 재단은 민주당 소속 지역 국회의원과 광주시의원, 전남도의원 등이 재단 고문, 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지역 국회의원인 이낙연·김동철·이응섭·임내현 의원은 상임고문으로 참여했고, 조호권 광주시의회 의장과 김재무 전남도의회 의장은 고문을 맡는다.

또한, 광주시의원 7명과 전남도의원 5명은 상임운영위원으로 참여한다.

광주·전남 동아시아 미래재단을 이끌어 갈 상임대표로는 이개호(사진) 전 전남도 행정부지사자가 맡았다.

이 상임대표는 "재단은 화합의 정치, 통합의 정치를 화두로 하는 손 전 대표와 함께 인간의 가치를 꿈꾸는 '저녁이 있는 삶'을 재구성하고 국제적 변화 속에서 지속 가능한 지역의 발전 전략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아시아 미래재단은 8일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경기, 충북, 대전·충남, 강원 등



의 순으로 지역별 지부 형태의 재단을 확대하고, '실사구시' '민심산약화' 등 손 전 대표의 지지그릇 및 팬클럽 등을 통합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손 전 대표의 정치 행보와 맞물려 민주당 내 주도권 경쟁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창당 예정인 안철수 신당 등 야권 재편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손 전 대표는 8일 창립대회에 참석해 "독일 사회를 통해 본 대한민국의 미래 구상"이란 주제로 특강을 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일당 독점 지방의회 중앙정치 예측, 견제 부족"

전진숙 광주 북구의원 지적

일당 독점 지역에서는 지방정부의 견제 세력이 부족하고,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요구 보다는 소속 정당과 국회의원의 지시와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행태가 나타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진숙(민주) 광주 북구의회 의원은 5일 협동조합 광주시민정책연구소가 주최한 '기초의원 제 역할하고 있나'라는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기초의회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방정치가 민주주의의 확고로서 의미보다 풀뿌리 보수세력의 권력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보수

화를 고착화한다"며 "중앙정치에 의한 지역정치의 예측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무관심은 심각한 수준"이라며 "지방의회의 폐지와 무용론, 공천제 폐지를 논의하기 전에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현재 나타나는 다양한 한계들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에 국방벤처센터

시-국방기술품질원 협약

광주시에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산업 진출을 돕는 국방벤처센터가 들어선다. 광주시와 국방기술품질원, 광주테크노파크는 5일 광주시청에서 광주국방벤처센터 공동 설립 운영 및 광주방위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서 국방기술품질원은 광주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하고 광주지역 내 국방분야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비롯한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기로 했으며, 광주시는 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고, 지역산업 정보 등도 제공하기로 했다.

특히 광주테크노파크는 국방 기술화 추진 사업과 연계해 광주국방벤처센터 입주 기업 육성 사업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광주국방벤처센터는 오는 12월 20일 광주테크노파크에서 개소식을 갖고 자동차산업, 정보가전 및 광산업 등 광주시 주력산업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국방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문순태 칼럼

지난 토요일 광주학생독립운동 84주년을 맞았다.

온 세상이 단풍으로 물든 이 찬란한 가을, 학생의 날을 맞는 감회가 울적하고 쓸쓸하다. 84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역사적 사건에 대해 별로 계고(稽考) 하려는 사람들이 없는 것 같기 때문이다.

광주에서는 3일 광주자연과학고에서 조출한 기념식을 가졌다. 광주시교육청 주관으로 독립운동의 역사적 배경과 정신 고취를 위한 수업을 하고, 유적답사 등 행사도 있었다.

정부 차원에서는 울산시교육청이 주관해 울산 여고에서 간소한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는 교육부장관 대신 학생복지안전관이 대리참석했다고 한다.

옛날에는 대통령이 참석했는데 차관도 아닌 복지안전관이라니... 무늬만 정부 차원 기념식일 뿐, 매년 전국 시·도 교육청이 돌아가면서 주관하고 있어, 지역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형식적 행사가 되고 있다.

규모나 역사적인 면에서 3·1운동, 6·10

관인 눈에 들어왔다. 입구 양쪽에는 광주청년회, 노동공제회 광주지회, 광주청년학원 등 기관들이 다다다다 붙어있었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소설로 쓴 작가 '알 수 없는 내일'에 나오는 흥학관의 한 부분이다. 흥학관은 1912년 광주 사동의 만석군 부자 최명구 씨가 광주 청년들의 수양회관으로, 구 시청 옆에 사비 1만 원이라는 거금을 들여 지은 목조 2층 집이다.

이 건물에는 광주청년회, 조선노동공제회지부, 전라노동동맹, 신간회 광주지회, 광주소년동맹 등의 사무실이 있었다.

또한, 광주청년학원이 1~2년 과정의 보통과 초등과 고등과 감습을 열었다. 보통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나이 많은 청년들이나 불우 청소년들이 여기서 공부한 후 고보에 입학했다.

훗날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주모자들 중 상당수가 광주청년학원 출신이다. 최한영·최홍중 등 독립운동 핵심 인사들이나 장재성·왕재일 등 광주학생독립운동 주동자들이 이곳에서 비밀 모임을 갖고 항일정

광주학생... 흥학관을 아시나요

만세운동과 함께 일제강점기 3대 항일독립운동으로 평가받는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왜 이렇듯 흥대를 받고 있는지 서술하다.

1953년 처음 제정된 광주학생의 날은 군부독재에 의해 폐지되기 전 까지만 해도 정부 차원의 기념식이 서울에서 거창하게 거행되었다.

1978년에 폐지된 학생의 날은 유신시대가 청산되자 11년 만에 부활했다. 내가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 까지만 해도 학생의 날을 맞은 광주 거리는 전국에서 몰려든 학생들로 일주일 내내 흥청거렸다.

광주일보 전신인 구 전남일보 주최로 열린 학생의 날 기념 전국학생연극제 외에 전국 규모의 백일장대회가 열리는 등 다채로운 행사로 광주는 학생들의 도시가 되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광주학생독립운동이 희미한 역사의 기억 속으로 멀어져가고 있는 것만 같아 안타깝다. 3·1운동과 8·15만 알고, 11월3일은 무슨 날인지조차 모른다.

특히 광주 시민들 중에서도 5·18은 알라도 학생의 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광주학생독립운동 84주년을 맞아 또 하나 있어서는 안 될 것이 있으니, 일제강점기 항일 민중운동의 요람이었던 흥학관(興學館)이다.

"양만석은 한참 동안 흥학관 앞에 서서 목조 2층 건물을 쳐다보았다. 중앙에 위치한 삼각조각 지붕 아래 '興學館'이라는 간

신을 다졌다. 이곳은 민족정신을 양양하는 종합수련원과 같은 장소였다.

강연장과 공연장이 있어서 청년들의 의식을 일깨우는 강연회와 공연이 열리기도 했다.

월남 이상재 등 거물급 인사들이 흥학관에서 강연을 할 때는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1927년 7월28일자 조선일보를 보면 '동경 학생수강단 광주에서 강연 중 금지' 라는 기사가 보인다. 동경 유학생 순회 강연단이 흥학관에서 입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만원을 이루는 가운데 시국강연을 하다가 경찰의 해산명령으로 중지된 내용을 알리고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누구나 흥학관을 거쳐 가면 항일정신으로 무장된다고 하였고 때문에 일본 경찰들이 흥학관에서 무슨 일을 하느니 눈을 부릅뜨고 주시했다고 한다. 1966년 이 건물을 보다 확대하여 광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말하자면 흥학관에서 발아된 흥학정신이 80년 이후 광주정신으로 이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이제 곧 광주학생독립운동 100주년을 맞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100주년을 준비하기 위해 광주학생독립운동에 대해 역사적 위상에 걸 맞는 자리매김을 하고, 역사인식을 보다 확대하여 광주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

광주의 정신적 역사적 공간이었던 흥학관을 복원하는 것도 생각해볼 일이다. (소설가)

신도시 공인중개사 사무소

■ 상가건물이나 땅 삽니다 ■

급매로 팔아야할 상가나 땅이 있으시면 저희 부동산에 전화 주십시오. 최대한 빠른 시일에! 높은 가격에! 바로 처분해 드립니다.

상가건물 매매

- 주월동 대지 2,000㎡, 건물 2,020㎡. (수익률 10%) 대출 16억5천포함. 매매가 38억.
- 쌍촌동 대단위아파트단지 내 대지 350㎡, 건물 996㎡ 매매가 16억.
- 신창동 대지 488㎡, 건물 966㎡ 매매가 15억 (공실없음)
- 풍암동 상업지역내 위치 좋은 신축상가 대지520㎡, 건물 3,135㎡ 대출28억 포함. 매매가 42억.

토지 매매

- 남구 주월동 대지 3,768㎡ 도시형생활주택, 소형빌라 신축적합 매매가 32억.
- 광산구 수완동 수완자동차매매단지 입구. 전 2,230㎡ 광고효과 최고. 물류센터, 타이어 적합. 매매가15억.
- 회순군 동면 오동리 전, 임야. 계획관리지역 17,730㎡ 매매가 2억9천만원.
- 나주시 북덕동 2차선 도로접 제1종일반주거지역 내 전 2,350㎡ 건축가능. 투자적합 매매가 1억9천만원 (급매)

비싼시더라도 대면해서 상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시 만큼 보답하는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 062-513-4985, 010-2338-3113

원룸전문(전대1분)

★전대 상대 농대1분★

- 룸11개(1층 상가)·월수의 420만. 준공완료
- 매가 5억9천(보증금 2000, 용 1억2천)

★전대 정문 1분★

- 룸18개(만실)·월수의 650만
- 매가 6억9천(보증금 2억, 용 1억2천)

★전대상대2분 용봉지구★

- 룸19개(1층 상가, 주택1개)
- 월수익 850만 ·매가 12억(용 4억)

★화정동 APT 입구 코너★

- 1층 상가, 2층상가, 3층룸9개, 4층룸9개
- 월수익 1300만 보3억 ·매가 19억

★남구 백운동 ★

- 룸15개(주택1개) ·매가 8억8천

★전대정문 1분 ★

- 룸15개(만실)·매가 6억3천 (보증금 4천 월510, 용 1억2천)

신한공인중개사

H.P. 010-6670-9800

신축원룸

(전대·상대·농대 쪽문임)

원룸

14개를 ▶ 11개로 최고위치!

1층상가 (2~4층 원투쓰리룸)

등기완료, 만실 (전면대리석, 벽돌집)

보증금 3천 월435 (연 5천2백)

매가 5억8천 (용1억3)

수완지구 상가

1층매매(17.5평) 3억5천

3층매매(85평) 3억2천

1층임대(18평) 보3천 월130만

3층임대(86평) 보3천 월190만

☎062)527-7600

급매매

신안동 신안 사거리 부근 30m 도로변 코너

6층 상업지역 건물

건물 600평 토지 151평

평당 토지 가격 600만원 정도

토지 가격 만도 9억정도

매매가격 9억 4천만원

라멘조 총별 100평 정도

조건은 전세, 월세 안고 구입

010-3215-9969

환상의 섬

단독(해남군소재)

평수 약 2000평 계획관리

차량진입, 가로등, 선착장, 방파제 설치됨

100%개발가능 (주택, 펜션, 기타 등) 주변 별장, 단독주택, 민가, 펜션있음

매가 평당 30만원 (협상가능)

◎주인 직매◎

010-9247-9240

공장매매

전남 장흥군 장평면 정평농공단지내

토 지: 4,864㎡

공 장: 375㎡

사무동: 161㎡

기계장치일체

용도 특수시멘트(몰탈등) 제조공장

매매가격 3억원

조성중인 정평2농공단지 (2014년 6월입주가능)

토지분양가 평당 222천원

연락처 : 017-602-1948